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어스타일: 연설문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김 영 준

김 경 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광복 이후 한국의 대통령의 연설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인 내용분석 연구들이 내용에 집중해 글쓴이의 생각을 분석한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는 기능어와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 내용어의 사용비율을 토대로 대통령의 생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대상과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존 언어분석 연구와 마찬가지로, 심리적이고 언어적인 변인들을 지표화하여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교하였다. 연구 1에서는 영향력, 진정성, 대통령다움, 인지적 복잡성, 여성성, 심리적 건강 등 6개의 언어스타일 지표를 개발하였다. 역대 대통령 8인의 공식 연설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통령 언어스타일 지표 모두에서 대통령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최근 대통령으로 올수록 연설문에서 진정성, 대통령다움, 심리적 건강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인지적 복잡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계입시대를 구분하여 언어스타일의 변화를 추세 분석한 결과 선형추세가 유의미하였다. 또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언어스타일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관찰됐다. 진보 성향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는 영향력과 인지적 복잡성이 높았고, 더 여성적인 언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 보수 성향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는 진정성이 높았고, 더 대통령다운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 연구 2에서는 개발된 언어스타일 지표가 직전인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도 신뢰도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관찰했다. 마지막으로 언어스타일 지표 간의 상관 특성, 2000년대 이후 정권과 일반 대중의 정치적 성향의 적합성, 본 연구의 지표인 여성성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KLIWC, 대통령 연설문, 언어행동적 특성, 진보, 보수

[†] 교신저자: 김경일,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연구분야: 인지심리학
E-mail: kyungilkim@ajou.ac.kr

서론

글을 분석하는 것은 그 글을 쓴 사람의 생각, 성격, 정서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상황을 적절히 묘사하지만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의 사용은 글쓴이 지적 수준을 가늠케 하고, ‘슬픈’, ‘우울한’ 등의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의 사용은 심리적 상태를 반영할 것이다. 또한, 불편한 기분을 예들려 말하는 사람은 직설적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기분도 배려한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언어분석적 접근은 중요한 인물의 언어를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대통령 또는 후보자의 연설문(권향원, 최도림, 2013; 박준형, 유호선, 김태영, 한희정, 오효정, 2017; De Castella, McGarty, & Musgrove, 2009; Pu, 2007; Savoy, 2018; Slatcher, Chung, Pennebaker, & Stone, 2007), 기업의 최고 경영자의 연설문(이지영, 김명언, 2011, Nan, & Liu, 2013)이 연구되었다.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말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말을 통해서 어떤 후보가 나라를 위한 생각과 진심이 있는지, 어떤 후보가 거짓 주장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혼란하게 하는지, 어떤 후보가 약자와 소수자에게 공감하고 있는지, 어떤 후보가 국민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부분적일지라도, 후보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은 한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Hillary Clinton에게 승리한 Donald Trump의 말은 미국민들뿐 아니라 세계를 긴장시키며, 근심하게 했다. NFL 선수들에게 한 욕("Get that son of a bitch off the field right now. Out! He's fired. He's fired!"), 메릴 스트립이 과대평가 됐다는 트윗("Meryl Streep, one of the most over-rated actresses in Hollywood, doesn't know me but attacked last night at the Golden Globes."), 내 핵단추가 더 크고 작동한다고 했던 트윗("I too have a Nuclear Button, but it is a much bigger & more powerful one than his, and my Button works!") 등은 그 충분한 예다. 또한,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혼이 비정상' 등의 말도 그 충분한 예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말에 불어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말에 관해 관심은 고조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언어에 대한 객관적이면서 심리학적 분석은 대통령의 철학과 성격뿐 아니라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를 평가하는 데 하나의 훌륭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과 18대 박근혜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그들의 언어스타일을 비교하였다.

내용분석과 언어스타일 분석

대한민국의 대통령 연설문을 분석한 연구들(권향원, 최도림, 2013; 박준형 등, 2017)의 분석 방

법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이었다. 내용분석 방법이란 글, 문서, 대중 매체의 메시지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단어를 숫자화하여 내용 속에 담겨진 의미나 특성을 파악하여 화자와 글쓴이를 이해하는 본질적인 방법의 하나이다(Krippendorff, 1989). 이러한 단어 수준의 분석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컴퓨터화된 프로그램 등으로 자동적이며, 객관적이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박준형 등(2017)은 대통령들 연설문의 고빈도 단어를 중심으로 단어 간의 상호중심성을 네트워크 분석법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내용분석 방법과 다르게, Slatcher et al. (2007)은 2004년 미국 대통령 후보자, John Kerry, John Edwards, George W. Bush, Dick Cheney의 언어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Cheney는 가장 지적인 언어를 구사했고, Edwards는 가장 여성적 언어를 사용했고, Bush는 가장 나이든 사람처럼 말했고, Kerry의 언어는 가장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언어에 가까웠다. 이런 흥미로운 결과는 고빈도 단어 중심의 내용분석이 아니라, 언어 차원의 기능어 범주와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내용어 범주의 비중을 계산해주는 LIWC를 통해서 도출되었다. 영어 글 분석 프로그램인 LIWC를 사용한 언어스타일 분석 연구들은 인지적 복잡성(Slatcher et al., 2007), 거짓말(Newman, Pennebaker, Berry, & Richards, 2003), 여성성(Newman, Groom, Handelman, & Pennebaker, 2008), 우울증(Rude, Gortner, & Pennebaker, 2004), 나이(Pennebaker & Stone, 2003) 등 개인차에 따라 언어스타일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였다. Slatcher et al. (2007)은 이러한 언어 사용 특징을 기반으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스타일 지표를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정직하게 말할 때, ‘나’를 나타내는 단어와 타인을 참조하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고, 배제 단어(exclusive)도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의 사용은 감소하였다(Newman et al., 2003). 이를 토대로, 정직성 지표(정직성 = ‘나’ 표현 단어 + ‘타인’ 표현 단어 + 배제 단어 - 부정적 정서 단어)가 개발되었다.

언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글 분석 프로그램인 KLIWC를 이용한 언어스타일 분석 연구들도 성차(김경일, 배진희, 이창환, 2009), 전문성(Kim, Bae, Nho, & Lee, 2011), 거짓말(김영일, 김영준, 김경일, 2016), 악성 댓글(김영일, 김영준, 김영진, 김경일, 2019; 김영준, 김영일, 김경일, 2013), 삶의 질(김경일, 배진희, 김영진, 김동근, 2011) 등 다양한 개인차에 따라 언어스타일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Slatcher et al. (2007)와 동일한 접근으로 정직성, 인지적 복잡성, 여성성, 심리적 건강 등 다양한 한국어 언어스타일 지표를 개발하여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의 언어스타일을 분석하여, 역대 대통령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대통령 연설문 분석을 위한 언어스타일 요인

본 연구는 대통령 연설문을 분석하여, 대통령 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스타일 요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Slatcher et al (2007)는 미국 대통령 후보자들의 연설을 분석하여 도출한 언어

스타일 요인으로 후보자들의 개인차를 설명하였다. 연구자들은 대통령 후보들의 연설문을 인지적 복잡성(cognitive complexity), 여성성(femininity), 우울(depress), 나이(aging), 대통령다움(presidentiality), 정직성(honest) 언어스타일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문을 영향력, 진정성, 대통령다움, 인지적 복잡성, 여성성, 심리적 건강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영어권 연구와 한국어 연구들을 문헌 연구하였다.

첫 번째로 도출된 요인은 연설문의 영향력(clout), 즉 카리스마였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Gettysburg Address), 히틀러의 뉘른베르크 나치당 집회 연설(1934년), 처칠의 의회 연설, 마틴 루터 킹 목사 연설, 케네디 연설, 오바마의 취임 연설에 이르기까지 지도자의 명연설은 청중을 열광적인 지지자로 만들었고, 행동하게 했다. 오바마의 연설은 젊은 흑인 상원의원을 미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의 말이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 연설문이 갖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연설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Jordan과 Pennebaker (2016)은 2016년 미국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와 클린턴 간의 토론에서 후보들 말에 나타난 영향력(clout)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감(confidence) 있게 말하는데, 우리(we-words: 예, we, our)와 사회적 단어(social words: friend, ally, group)를 더 많이 사용하였고, 나(I-words: 예, I, my, mine), 부정어(negations: 예, no, not, never), 맹세어(swear words)를 적게 사용하였다. 미국의 현 대통령 트럼프와 과거 대통령들의 국정 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 분석(Jordan & Pennebaker, 2017)에 따르면,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등 최근의 미국 대통령들의 연설문이 과거의 대통령들보다 더 높은 자신감을 보였다.

두 번째 요인은 진정성(authenticity)이었다. 연설문의 진정성이 높다는 것은 그 연설문에 담긴 말이 진실이고 거짓이 없음을 의미한다. 진실문(true statement)과 거짓문(lie statement)을 단어적 수준에서 비교하였던 문헌을 보면, 크게 거짓을 탐지하려는 목적과 진실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우선 거짓 탐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어 사용의 특징을 보면, 거짓문에서 1인칭 자기 참조의 사용이 진실문보다 적었고(김영일 등, 2016; Bond & Lee, 2005; Newman et al., 2003), 3인칭 참조의 특징은 분명하지 않은데, Newman et al. (2003)과 Bond와 Lee (2005)의 연구에서는 거짓문에서 3인칭 참조가 진실문보다 더 적게 사용되었지만, Vrij (2000)의 연구에서는 거짓문에서 진실문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메타 분석 연구인 DePaulo et al. (2003)에 따르면, 3인칭 참조는 진실 조건과 거짓 조건 간에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높은 인지적 복잡성을 의미하는 배제 단어는 대안 간의 차이를 나타낼 때 사용하였지만(Newman et al., 2003), 동등한 대안을 제시할 때도 사용되었다. 이 동등한 가능성을 갖는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은 사기꾼들이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제시된 동등 대안들이 의사소통을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만든다(Bavelas, Black, Chovil, & Mullett, 1990). 속이는 행동을 할 때, 부정적 정서(negative emotions)는 그 행동과 관련된 죄책감(guilt), 불안, 흥분에 의해 표현되었다(Bond & Lee, 2005; DePaulo et al., 2003; Vrij, 2000).

반대로 진실 탐지 목적인, 현실성 모니터링(Reality monitoring, RM)은 진실문을 탐지하기 위해 Johnson과 Raye (1981)에 의해 제안되었다. RM은 기억의 진정성(Authenticity of memories)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진실 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실험실 연구들(Bond & Lee, 2005; Bond, Thompson, & Malloy, 2005)도 RM를 뒷받침하고 있다. RM의 특징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현실성(reality)에 있다. 즉 감각 및 지각적 특성, 시공간적 특성, 애증적 정서표현 등은 거짓문보다 진실문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고, 반대로 인지적 기제는 거짓문보다 진실문에서 적게 사용되었다(Bond & Lee, 2005). Porter와 Yuille (1996)이 사용한 범주들은 자기 참조('I', 'my' 등), verbal hedge('I believe', 'it seems'), 구절(pauses), 전체 단어 수였고, 이 범주들의 사용이 거짓 조건보다 진실 조건에서 더 적었다.

한국어 문헌(김영일 등, 2016; 문옥영, 김시업, 전우병, 김범준, 2011)에 따르면, 진정성과 관련된 한국어 연구의 특성은 다양한 범주에서 차이를 보였다. 두 연구의 세 번의 비교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특성을 보면, 진실을 말할 때 사용 비중이 더 높은 범주는 1인칭 단수, 인용조사, 부정적 정서였고, 거짓을 말할 때 사용 비중이 높은 범주는 일반명사, 이다조사, 일반부사, 긍정적 정서, 긍정적인 느낌, 자기활동, 식사/음주/다이어트였다. 인용조사, 감각/지각과정은 세 번의 실험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도출된 요인은 대통령답게 말하는 가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한국의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말은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다른 방식이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예측하지 못한 대통령의 말은 국민에게 각인되는 특이성이 있지만, 국가 정책 책임자 자질을 의심받기 마련이다. 미국 전직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에서 확인된 언어스타일은 관사(article), 대명사(pronoun), 긍정적인 감정(positive emotion), 6자 이상의 단어 사용 빈도가 높았고, 이 요인을 대통령 자질(Presidentiality)로 이름 붙였다(Slatcher et al., 2007). 본 연구에서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대통령다운 언어스타일을 분석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인지적 복잡성이었다. 인지적으로 복잡한 사람들의 언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언어행동적 특성들이 관찰되었다. 사고방식(thinking style)이 인지적으로 복잡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적 단어들(예, think, because)을 더 높은 비율로 사용하였다(Newman et al., 2003; Pennebaker & King, 1999; Tausczik & Pennebaker, 2010). Pennebaker와 King (1999)은 15개의 LIWC 변인들에 기저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하여, 인지적 복잡성이라 할 수 있는 요인("Making Distinctions"로 명명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요인은 높은 사용 비율의 배제 단어(exclusive words: 예, but, except), 잠정적 표현(tentative words: 예, maybe, perhaps), 부정어(negations: 예, no, never), 불일치(discrepancies: 예, should, would)와 낮은 사용 비율의 포함 단어(inclusive words: 예, with, and)로 구성되었다. 인지적 복잡성은 여러 경쟁 안 중의 하나가 다른 안들과 다른 정도(배제어: 예, but, without, exclude)와 통합되는 정도(연결어: 예, and, also, although)를 추론하는 서로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었다(Tausczik & Pennebaker, 2010; Tetlock, 1981). 대학생들

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통찰어(insight word: 예, think, understand, realize)와 인과 단어(causal words: 예, because, cause, effect)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Pennebaker & King, 1999; Slatcher et al., 2007).

다섯 번째 요인은 여성성이었다. 메타 분석 결과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은 단어, 조사, 전치사를 사용하였고,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단어, 대명사, 1인칭 단수와 3인칭 대명사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Newman et al., 2008). 한국어 사용 특성을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은 문장과 어절을 사용하였고, 일반조사와 사회적 과정의 직업/일의 비중이 높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문장당 어절 비율, 문장당 형태소의 비율이 높았고, 조사, 인용조사, 부사와 감정 및 정서 과정 범주의 긍정적 정서, 긍정적 느낌, 부정적 정서, 불안의 비중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요인은 심리적 건강(psychological health or wellness)이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언어 특성은 두 가지 종류의 자료에 기반하는데, 하나는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즉, 우울한 사람들에 관한 연구였다. 우울한 사람과 자살한 시인의 언어를 분석하여 우울한 사람의 언어 특징인 우울 지표를 개발한, Slatcher et al. (2007)의 연구에 따르면, 1인칭 단수(나는, 나, 나의), 신체적 단어(예, 통증, 잠), 부정적인 감정 단어들(증오, 무가치)의 사용 비중이 높고, 긍정적인 단어들은 사용 비중이 낮았다. 다른 하나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언어의 특성이었다. 김경일 등(2011)은 어절/문장, 외래어표현, 자기활동, 직장/일, 돈/재정적 이슈 범주의 사용 비중이 높았고, 지시대명사, 형용사, 어미, 추측, 신체적 상태와 기능 범주의 사용 비중이 작았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영향력, 진정성, 대통령다움, 인지적 복잡성, 여성성, 심리적 건강 등의 언어스타일 요인을 개발하고, 이 요인으로 전직 대통령들 간의 언어스타일 간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

전직 대통령 연설문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의 연설기록(<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에서 수집되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17대 이명박까지 10명의 전직 대통령 연설문 6681건 중에서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는 2대 윤보선(3건, 0.0%)과 4대 최규하(58건, 0.9%)의 자료를 제외하고, 8명의 전직 대통령의 6620건의 연설문을 KLIWC 분석하였다. 태깅 실패 등의 오류가 발생한 204건을 제외하고 6416건의 자료로 언어스타일 요인점수를 계산하였다.

분석 전략

개별 연설문의 글 분석에는 한국어 글 분석 프로그램인 KLIWC를 사용하였다. KLIWC는 LIWC의 한국어 버전으로, 입력된 텍스트를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 단위로 품사를 태깅하여 일차적으로 언어학적 차원으로 분류한다. 이후 과정으로 정서 과정, 인지 과정, 사회적 과정 등의 심리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약 70여개 변수의 사용 빈도와 비중을 제공한다(이창환, 심정미, 윤애선, 2005). KLIWC 분석은 텍스트 파일(.txt) 업로드, 형태소 태깅, 언어차원 분류, 심리차원 분류 순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6620건의 연설문 텍스트 파일(.txt)을 준비해, 개별 파일을 업로드하여 KLIWC 분석을 하였다. 일단 KLIWC 분석과정을 거친 후 언어스타일 요인을 개발하였다. 여기에는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언어특징을 바탕으로, 영향력(카리스마), 진정성, 대통령다움, 인지적 복잡성, 여성성, 심리적 건강 지표(점수)를 계산하였다. 개별 스타일 요인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각각의 관련 변수의 사용 비중을 연설자에 따라 z점수로 변환하여 합산하였다. 연설문은 국회연설, 축하와 추념 연설, 국민 대상 연설, 국제 행사 연설 등 다양한 상황과 외교, 안보, 경제, 안전,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주제로 쓰였기 때문에, 대통령 간의 연설문 특징 비교를 위해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대통령마다 연설문의 양과 개별 연설문의 길이에 도 큰 차이가 있어 비교를 위해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었다. 개별 언어스타일 요인 점수의 계산은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영향력(카리스마)

대통령과 후보들 같은 공적인 인물들의 언어스타일을 분석하는, Wordwatchers의 미국 대통령 연설의 영향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향력 있게 말하는 사람은 1인칭 복수와 사회적 과정의 단어 사용 비중이 높고, 1인칭 단수, 부정어, 맹세어의 사용 비중이 낮았다(Jordan & Pennebaker, 2016). 청중을 휘어잡는 영향력은 자신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Jordan & Pennebaker, 2017)에 자신감 표현에 해당되는 언어적 특징인 확신, 성취, 긍정적인 정서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KLIWC는 부정어 변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영향력 점수를 계산에서 부정어는 제외하였다. 또한, 1인칭 단수, 복수와 맹세어절도 제외하였다. 영향력 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고, 내적일치도는 .651이었고, Guttman 반분신뢰도¹⁾는 .550이었다.

1) 본 연구의 Guttman 반분신뢰도 계수는 전후절반법으로 IBM SPSS Statistics 22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영향력의 경우 부분 1에는 ‘사회적과정’, ‘의사소통’, 부분 2에는 ‘또래/친구’, ‘긍정적인정서’가 포함되었고, 신뢰도 계수가 계산되었다. 진정성의 경우는 부분 1에는 ‘감각및지각과정’, ‘형태소’, ‘인지적과정’, ‘제한’, ‘형태소/문장’, ‘3인칭단수’가, 부분 2에는 ‘부정적인 정서’, ‘불안’, ‘이다조사’, ‘일반부사’, ‘식사/음주/다이어트’가 포함되었다. 대통령다움의 부분 1에는 ‘긍정적인정서’, ‘긍정적인느낌’, ‘낙천성또는활동성’, ‘의사소통’, ‘의존명사’, ‘지시대명사’가, 부분 2에는 ‘이다조사’, ‘동사’, ‘일반부사’, ‘어미’, ‘제한’, ‘체면’이 포함되었다. 인지적 복잡성은 부분 1에는 ‘원인’, ‘사고’, ‘기대’, ‘제한’, ‘추측’, ‘확신’, ‘어절/문

$$\text{영향력} = z(\text{사회적과정}) + z(\text{의사소통}) + z(\text{또래/친구}) + z(\text{긍정적인정서})$$

진정성

진실 탐지에 초점을 둔 연구와 거짓 탐지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 확인된 언어사용 특성을 종합하면, 진실을 말할 때 사용 비중이 높은 변수는 1인칭 단수, 감각 및 지각적 언어, 시공간 표현, 애증적 정서표현, 동작 단어였고 KLIWC 변수에 대응하지 않는 시공간표현, 동작단어는 제외하였다. 반대로 거짓을 말할 때 사용비중이 높은 범주는 배제단어, 부정적인 정서, 인지적 기제, verbal hedge, 구절, 전체 단어 수였고 KLIWC 변수에 대응하지 않는 verbal hedge도 역시 제외하였다. 구절에 대응하는 KLIWC 변수는 없지만, 문장당 형태소의 수를 의미하는 형태소/문장 변수를 사용하였다. 구절의 높은 비율은 복문 형태의 문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복문일 때 단문보다 형태소/문장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어 연구 결과를 반영한 진정성 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고, 내적일치도는 .660이었고, Guttman 반분신뢰도는 .628이었다.

$$\begin{aligned} \text{진정성} = & z(\text{감각및지각적과정}) - z(\text{형태소}) - z(\text{인지적인과정}) - z(\text{제한}) \\ & - z(\text{형태소/문장}) - z(3\text{인칭단수}) - z(\text{부정적인정서}) - z(\text{불안}) \\ & - z(\text{이다조사}) - z(\text{일반부사}) - z(\text{식사/음주/다이어트}) \end{aligned}$$

대통령다움

Slatcher et al. (2007)은 대통령다움의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와 일반 텍스트를 비교하여 차이가 나타난, 관사, 대명사, 긍정적인 감정, 6자 이상 단어의 LIWC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 18건(문장 수: 평균, 89.89, 표준편차, 59.141)과 KLIWC DB(2014년~2015년 자료)에서 문장의 수가 20~149개인 텍스트 3091건을 비교군으로 하여,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다움의 언어스타일 범주를 선택하였다. 36개의 KLIWC 변인에서 취임사와 비교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KLIWC 변인과 대응되지 않는 6자 이상 단어는 제외되었다. 관사, 대명사, 긍정적인 감정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사 특징을 반영하여 대통령다움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고, 내적일치도는 .750이었고, Guttman 반분신뢰도는 .591이었다.

장'이, 부분 2에는 '지시대명사', '선어말어미', '긍정적인느낌', '감각및지각적인과정', '사회적과정'이 포함되었다. 여성성은 부분 1에 '사회적과정', '의사소통', '인칭대명사', '1인칭'이, 부분 2에는 '형태소', '긍정적인정서', '긍정적인느낌'이 포함되었다. 심리적 건강은 부분 1에 '긍정적인정서', '명사추정의래어', '자기활동', '직장/일', '돈/재정적이슈', '불안'이, 부분 2에는 '슬픔또는우울', '지시대명사', '형용사', '어미', '추측'이 포함되었다. 모든 항목은 z변환값이었다.

$$\begin{aligned} \text{대통령다움} &= z(\text{공정적인정서}) + z(\text{공정적인느낌}) + z(\text{낙천성또는활동성}) \\ &- z(\text{의사소통}) - z(\text{의존명사}) - z(\text{지시대명사}) - z(\text{이다조사}) \\ &- z(\text{동사}) - z(\text{일반부사}) - z(\text{어미}) - z(\text{제한}) - z(\text{체면}) \end{aligned}$$

인지적 복잡성

감각적이거나 정서적인 사람보다 인지적인 사람은 인과단어, 통찰단어, 배제단어, 잠정적인 표현, 불일치 변수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포함단어는 더 적게 사용하였다. KLIWC 변수와 대응하지 않는 부정어와 포함단어는 제외하였다. 직접 대응하지는 않지만, 표현에 기저하는 인지적인 과정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배제단어, 잠정적인 표현, 불일치는 각각 제한, 추측, 기대로 대체하였다(김영일 등, 2019). 인지적 복잡성에 대한 한국어 특성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언어를 비교한 연구(Kim et al., 2011)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절/문장, 일반명사, 대명사, 인칭대명사, 어미, 인지적인 과정, 부정적인 정서 변수의 사용 비중이 높았고, 반대로 인용조사, 동사, 형용사, 선어말어미, 긍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느낌, 낙천성과 활동성, 감각과 지각적인 과정, 사회적 과정 변수의 사용 비중이 작았다. 전문가는 비전문가보다 정서적이거나 감각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인지적인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포함하여 인지적 복잡성 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고, 내적일치도는 .693이었고, Guttman 반분신뢰도는 .649이었다.

$$\begin{aligned} \text{인지적 복잡성} &= z(\text{원인}) + z(\text{사고}) + z(\text{기대}) + z(\text{제한}) + z(\text{추측}) + z(\text{확신}) \\ &+ z(\text{어절/문장}) + z(\text{지시대명사}) - z(\text{선어말어미}) \\ &- z(\text{공정적인느낌}) - z(\text{낙천성또는활동성}) + z(\text{부정적인정서}) \\ &- z(\text{감각또는지각적인과정}) - z(\text{사회적과정}) \end{aligned}$$

여성성

남녀의 언어 차이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Newman et al., 2008)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범주는 사회적 단어, 대명사, 1인칭 단수, 3인칭 대명사였고, 남성이 더 많이 사용하는 범주는 조사, 전치사, 단어 수였다. KLIWC 변수에 없는 전치사는 조사로 대체하였고, 한국어 남녀 언어 사용 특성 비교 연구 결과(김경일 등, 2009)를 반영하였다. 여성은 어절/문장, 형태소/문장, 조사, 인용조사, 일반부사, 긍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정서, 불안 변수의 단어의 사용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조사의 경우 언어권 간의 결과가 상충하여 배제하였다. 여성성 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고, 내적일치도는 .714이었고, Guttman 반분신뢰도는 .532이었다.

$$\begin{aligned} \text{여성성} &= z(\text{사회적과정}) + z(\text{의사소통}) + z(\text{인칭대명사}) + z(\text{1인칭단수}) \\ &\quad - z(\text{형태소}) + z(\text{긍정적인정서}) + z(\text{긍정적인느낌}) \end{aligned}$$

심리적 건강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언어 특성은 높은 삶에 대한 만족도(김경일 등, 2011)와 낮은 우울(Slatcher et al., 2007)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심리적 건강 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고, 내적일치도는 .650이었고, Guttman 반분신뢰도는 .582이었다.

$$\begin{aligned} \text{심리적 건강} &= z(\text{긍정적인정서}) + z(\text{명사추정외래어}) + z(\text{자기활동}) + z(\text{직장/일}) \\ &\quad + z(\text{돈/재정적이슈}) - z(\text{불안}) - z(\text{슬픔또는우울}) - z(\text{지시대명사}) \\ &\quad - z(\text{형용사}) - z(\text{어미}) - z(\text{추측}) \end{aligned}$$

결과 및 논의

대통령들의 언어스타일 간 차이

그림 1과 표 1에 대통령별 언어스타일 요인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직 대통령들의 연설문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원 분산분석을 하였다. 6개 요인 모두 대통령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개별 대통령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post hoc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개별 요인별로 기술하였다. Scheffé 검정 결과 영향력은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낮았고, 다른 대통령들과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두 번째로 낮았고 역시 다른 대통령과 구별되었다. 반대로 가장 높은 영향을 나타낸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대통령과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진정성을 보면, 진정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이명박,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

표 1. 대통령별 언어스타일 요인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F	η_p^2
영향력	-1.63 ^a	-0.81 ^b	0.41 ^c	0.05 ^c	0.36 ^c	0.94 ^{d,e}	1.05 ^e	0.53 ^{c,d}	106.07 ^{***}	.10
진정성	-5.59 ^a	-1.51 ^b	-0.04 ^c	1.08 ^d	1.98 ^e	1.93 ^e	1.91 ^e	2.45 ^e	435.21 ^{***}	.32
대통령다움	-6.48 ^a	-1.61 ^b	1.57 ^d	0.44 ^c	1.98 ^d	2.30 ^d	1.85 ^d	2.59 ^d	284.21 ^{***}	.24
인지적복잡성	8.02 ^e	1.07 ^d	-0.39 ^c	-0.59 ^c	-1.09 ^c	-2.16 ^b	-3.29 ^a	-3.87 ^a	469.82 ^{***}	.34
여성성	-2.84 ^a	-0.28 ^b	-0.31 ^b	-0.34 ^b	0.95 ^c	1.30 ^c	1.19 ^c	0.86 ^c	98.73 ^{***}	.10
심리적건강	-5.02 ^a	-1.55 ^b	-0.80 ^{b,c}	-0.68 ^c	1.73 ^d	2.98 ^e	1.87 ^d	2.92 ^e	328.24 ^{***}	.26

***은 p<.001 수준에서의 유의미함을 의미하고, 알파벳은 Scheffé test의 동일집단군(same subsets)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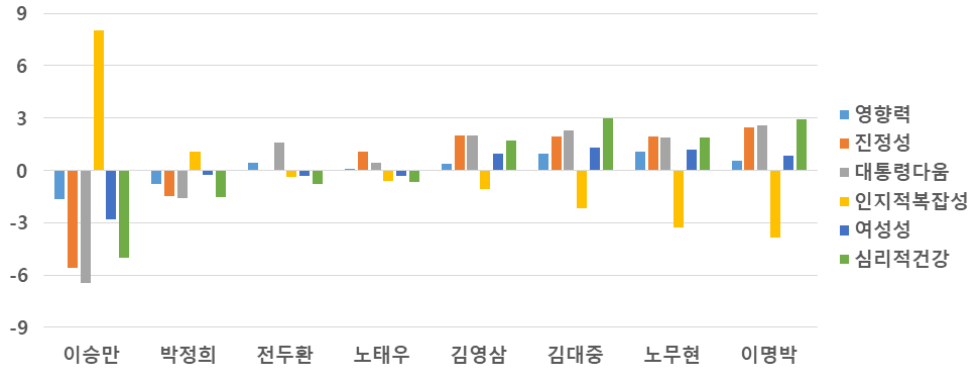


그림 1. 대통령별 언어스타일 표준화 점수

통령이 하나의 동일집단군에 속했고 각각 다른 대통령들과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진정성 점수가 가장 낮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다. 가장 대통령답게 말한 대통령은 높은 순으로 이명박,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전두환 대통령이 하나의 동일집단군에 속했고 다른 대통령과의 차이가 각각 유의미하였다. 가장 대통령답지 않게 연설한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다. 연설문에 나타난 사고 과정이 가장 복잡한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다. 가장 단순하게 연설한 대통령은 이명박, 노무현이었다. 가장 여성적인 언어를 사용한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이명박이었고, 가장 남성적으로 말한 대통령은 이승만이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언어를 사용한 대통령은 김대중, 이명박이었고, 가장 건강하지 못한 언어의 사용은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나타났다.

대통령별로 특징을 정리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언어스타일이 가장 특이하였다. 다른 대통령과 비교할 때, 인지적 복잡성이 가장 높았고, 영향력, 진정성, 대통령다움, 심리적 건강은 모두 가장 낮았고, 가장 남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언어 특징은 다른 대통령과 비교할 때, 6개 요인 모두에서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 위치하였다. 다시 말해서, 인지적 복잡성이 두 번째로 높았고, 영향력, 진정성은 두 번째로 낮았다. 이승만 다음으로 남성적인 언어와 건강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 비교할 때, 대통령답게 말하려는 경향이 가장 높지는 않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의 다른 요인들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다른 요인들보다 진정성이 가장 높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진정성과 대통령다움이 높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인지적 복잡성은 낮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진정성과 대통령다움, 심리적 건강이 높았고, 인지적 복잡성이 낮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과 유사한 언어사용 특성을 보였는데, 인지적 복잡성은 더 낮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비슷한 언어사용 특성이 확인되었는데, 인지적 복잡성은 다른 대통령 비교할 때, 가장 낮았고, 심리적 건강은 가장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눈에 띄게 다른데, 이는 시대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의 재임시대는 광복 후 60년까지로 50년대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60~70년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은 80~90년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은 2000년대였다. 이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는 인터넷, 스마트폰의 등장했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중매체의 형태가 신문에서 TV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포털사이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IT 매체의 영향력 강화가 있었다. 언어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국내외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연설문 분석에서 재임시대에 따른 대통령 언어의 변화 효과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재임시대에 따른 대통령 언어스타일의 변화

재임시대에 따른 언어스타일 요인의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모두 유의미($F_{영향력(3,6412)} = 239.01, p < .001, \eta_p^2 = .10; F_{진정성(3,6412)} = 968.10, p < .001, \eta_p^2 = .31; F_{대통령다움(3,6412)} = 648.50, p < .001, \eta_p^2 = .23; F_{인지적복잡성(3,6412)} = 1070.19, p < .001, \eta_p^2 = .33; F_{여성성(3,6412)} = 212.26, p < .001, \eta_p^2 = .09; F_{심리적건강(3,6412)} = 564.19, p < .001, \eta_p^2 = .21$)하였다. 인지적 복잡성은 제외한 모든 요인이 재임시대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였고, 인지적 복잡성은 재임시대의 변화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대통령 분석의 결과에 재임시대의 효과가 포함되었다는 해석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경향성은 추세분석에서도 지지되었다. 추세분석 결과 모든 언어스타일 요인에서 선형 추세가 유의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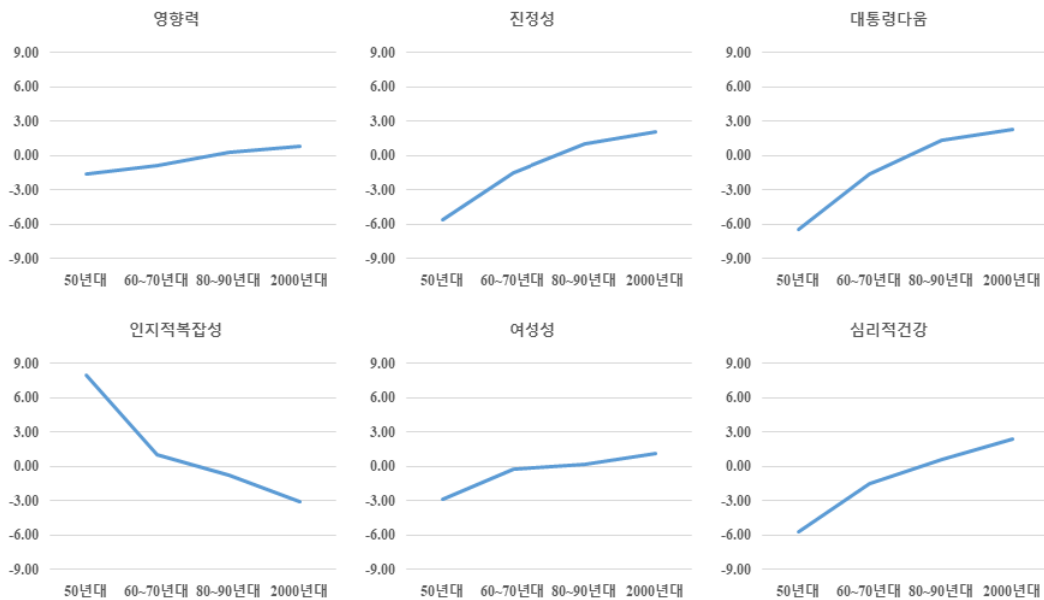


그림 2. 재임시대에 따른 언어스타일 점수의 변화

차기 대통령 연설문의 경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2차와 3차 추세를 추가 분석하였다. 영향력 요인은 선형 추세와 3차 추세가 유의미($F_{\text{선형}} = 683.41, p < .001; F_{2\text{차}} = 23.96, p = .065; F_{3\text{차}} = 50.07, p = .008$)하였다. 진정성 요인은 선형과 2차 추세가 유의미($F_{\text{선형}} = 2898.15, p < .001; F_{2\text{차}} = 216.77, p < .001; F_{3\text{차}} = .19, p = .889$)하였다. 대통령다움 요인도 선형과 2차 추세가 유의미($F_{\text{선형}} = 1933.18, p < .001; F_{2\text{차}} = 189.69, p < .001; F_{3\text{차}} = .137, p = .711$)하였다. 인지적 복잡성($F_{\text{선형}} = 3153.60, p < .001; F_{2\text{차}} = 281.10, p < .001; F_{3\text{차}} = 94.25, p < .001$), 여성성($F_{\text{선형}} = 615.17, p < .001; F_{2\text{차}} = 55.27, p < .001; F_{3\text{차}} = 31.33, p < .001$), 정신적 건강 요인($F_{\text{선형}} = 1682.46, p < .001; F_{2\text{차}} = 72.91, p < .001; F_{3\text{차}} = 9.44, p = .002$)은 선형, 2차, 3차 추세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추세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향후 정권들의 연설문은 영향력, 여성성, 심리적 건강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진정성과 대통령다움은 2차 추세가 유의미하였기 때문에 향후 대통령의 진정성과 대통령다움은 감소하거나 증가 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인지적 복잡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언어스타일이 다른가?

전직 대통령 8인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치성향은 진보와 보수를 구분할 수 있다. 보수성향 정권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권이었고, 진보성향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었던 것이다. 진보와 보수 정권 간의 언어스타일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언어스타일 모두에서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진보 정권의 연설문은 영향력, 진정성이 높았고, 더 대통령답게 말하였고, 여성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고, 심리적으로 더 건강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반대로 보수 정권은 인지적으로 더 복잡하였다.

표 2. 정치성향에 따른 언어스타일 표준점수

	전체				2000년 이후 3인			
	보수	진보	<i>t</i>	<i>d</i>	보수	진보	<i>t</i>	<i>d</i>
영향력	-0.32(2.63)	0.99(3.07)	-16.21***	.46	0.53(2.73)	0.99(3.07)	-3.76***	.16
진정성	-0.62(4.74)	1.92(3.98)	-20.89***	.58	2.45(3.33)	1.92(3.98)	3.41**	.14
대통령다움	-0.67(6.29)	2.08(5.40)	-16.82***	.47	2.59(5.39)	2.08(5.40)	2.18*	.09
인지적복잡성	0.87(6.33)	-2.70(5.20)	22.35***	.62	-3.87(4.61)	-2.70(5.20)	-5.56***	.24
여성성	-0.40(4.14)	1.25(4.34)	-13.51***	.39	0.86(3.91)	1.25(4.34)	-2.16*	.09
심리적건강	-0.80(5.89)	2.49(5.24)	-20.92***	.59	2.37(5.11)	2.49(5.24)	-0.54	.02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고, *은 $p < .05$ 수준에서의 유의미함을, **은 $p < .01$ 수준에서의 유의미함을, ***은 $p < .001$ 수준에서의 유의미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앞서 확인하였듯이, 진보와 보수의 차이에도 재임시대의 효과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진보성향 정권의 재임시대는 2000년대에만 속해 있어서 재임시대를 2000년대로 고정하고 진보(김대중, 노무현, n=1562)와 보수(이명박, n=797)간의 언어스타일 간의 평균 차이를 다시 비교하였다. 진보정권의 연설문은 보수정권의 연설문보다 영향력, 인지적 복잡성이 높았고, 여성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보수정권의 연설문은 진보정권의 연설문보다 진정성이 높았고, 더 대통령다운 언어를 사용하였다. 정치성향 간에 심리적 건강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언어스타일 요인간 상관

언어스타일 요인간의 상관을 표 3에 나타내었다. 심리적 건강과 여성성 간의 상관이 .182로 가장 낮았고, 영향력과 여성성 간의 상관이 .836으로 가장 높았다. 인지적 복잡성과 다른 변인 간에는 일관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영향력과 여성성 간의 상관이 가장 강했다. 이는 여성적인 언어가 남성적 언어보다 대중의 마음을 더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이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비교적 낮은 상관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건강과 여성성 간의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심리적 건강에 관한 성차 연구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산다는 분명한 사실(Ginter & Simko, 2013; Mitnitski, Mogilner, & Rockwood, 2001; Schünemann, Strulik, & Trimborn, 2017)과 더 오래 살았다고 더 건강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소위 “male-female health-survival paradox”가 상충하고 있다(Case & Paxson, 2005; Jagger et al., 2008; Van Oyen et al., 2013). 한국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덜 건강하다는 자기보고식 연구도 있다(OECD, 2013). 본 연구 결과는 심리적 건강과 성차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해석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표현적 글쓰기는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Pennebaker & Chung, 2007), 간접적이긴 하지만 여성보다

표 3. 언어스타일 요인 간 상관표(n=6416)

	영향력	진정성	대통령다운	인지적 복잡성	여성성	심리적건강
영향력						
진정성	.431***					
대통령다운	.578***	.729***				
인지적복잡성	-.590***	-.783***	-.734***			
여성성	.836***	.509***	.591***	-.642***		
심리적건강	.188***	.561***	.637***	-.457***	.182***	

***은 p<.001 수준에서의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남성에게서 표현적 글쓰기의 효과가 컸다(Frattaroli, 2006; Range & Jenkins, 2010; Smyth, 1998). 표현적 글쓰기의 효과처럼 정서적 표현이 더 많은 여성적 언어를 쓰는 것이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인지적 복잡성과 진정성 간에 -0.783 으로 강한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쉽고 간단히 말할수록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연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짧은 문장이었다. “Great people”, “Believe me”, “Not good”과 같은 두 단어 표현과 “make America great again”과 같은 짧은 구가 대표적이었다(Inzaurrealde, 2017).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2016년 미국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서 후보들의 언어스타일 연구(Savoy, 2018)에 따르면, 트럼프는 진정성 있게 말했다. 비록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시민들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반복했다. 공화당 후보 경선(presidential primaries)에서 경쟁자들보다 가장 짧고 직접적인 소통 스타일을 보였고, 경선에서 승리했다. 본 연구처럼 언어스타일 요인 간의 상관을 직접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Slatcher et al. (2007)에 따르면, 2004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George W. Bush)는 케리에게 승리했고, 부시는 케리보다 더 정직했다. 다만 그들의 인지적 복잡성은 같았다.

연구 2: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의 특징 분석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연설문에는 보통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단어들(등장하여 논란이 많았다. 예를 들어, ‘대박’²⁾, ‘적폐’³⁾, ‘혼이 비정상’⁴⁾, ‘진실한 사람들’⁵⁾) 등은 언론(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2584.html)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특이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의 특징을 전직 대통령들의 연설문과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함과 동시에 연구 1에서 개발한 언어스타일 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자료 수집과 분석 전략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18대 박근혜의 연설문 자료는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자료는 언론에 공개된 자료 236건의 자료를

- 2) “통일은 대박이다”(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 3)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낱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2014년 8월 15일 ‘제69주년 경축사’)
- 4)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2015년 11월10일 국무회의)
- 5) “(선거에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2015년 11월 10일 국무회의)

수집하여 연구 1과 동일한 절차로 분석하였다. 연구 1의 연설문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6개의 요인들을 사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스타일을 평가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에 대한 언어스타일 요인인 영향력, 진정성, 대통령다움, 인지적 복잡성, 여성성, 심리적 건강 중 진정성과 대통령다움의 신뢰도는 낮아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영향력, 인지적 복잡성, 여성성의 척도 신뢰도는 다음과 같았다. 영향력의 내적일치도는 .674이었고, Guttman 반분신뢰도는 .619이었다. 인지적 복잡성의 내적일치도는 .568이었고, Guttman 반분신뢰도는 .493이었다. 여성성의 내적일치도는 .792이었고, Guttman 반분신뢰도는 .630이었다. 심리적 건강의 내적일치도는 .699이었고, Guttman 반분신뢰도는 .509였다.

결과 및 논의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스타일의 특징

1~17대 대통령의 연설문(4대 윤보선과 10대 최규하 제외)과 비교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 인지적 복잡성, 여성성은 평균 이하였고, 심리적 건강은 평균 이상이었다. 두드러진 점은 심리적 건강과 여성성에서 관찰되었다(그림 3).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건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건강한 언어를 사용한 김대중 대통령보다 2배 이상이었다. 다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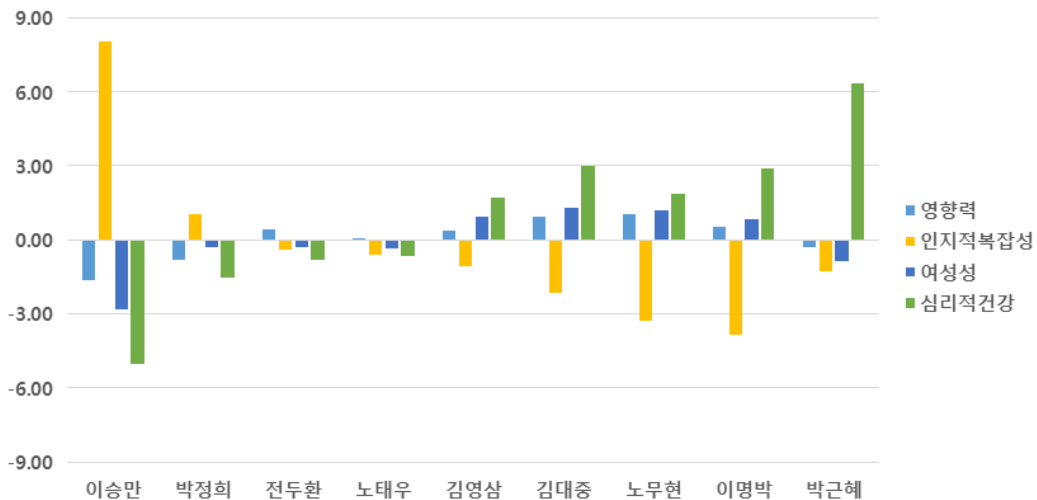


그림 3. 역대 대통령의 언어스타일 표준점수(박근혜 포함)

6) 박근혜의 연설문 자료의 Guttman 반분신뢰도 계수는 연구 1과 동일한 절차로 계산되었고, 영향력, 인지적 복잡성, 여성성, 심리적 건강의 전후반 절반에 모두 동일한 항목이 포함되었고, 모두 z변환값을 사용하였다.

여성성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유일한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연설문은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면 가장 여성적이지 않았다. 90년대에서 2000년대의 여성적인 언어 사용의 증가 성향과 다르게 50~70년대의 군 출신 대통령들보다 남성적인 언어 사용 비중이 높았다.

영향력과 인지적 복잡성 지표의 특징은 정치성향에 비추어 볼 때 흥미로운 특징이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은 세 번째로 낮은 위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어특징을 정치성향 구분에 견주어보면, 보수의 평균과 유사하였지만, 2000년대의 보수 영향력보다는 낮았다(정치성향 비교는 표 2 참조). 인지적 복잡성은 4번째로 낮은 위치였고, 김영삼 대통령의 인지적 복잡성과 유사하였다. 최근 대통령들의 연설문 특성은 인지과정이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은 8~90년대의 연설문과 유사한 인지적 복잡성을 보였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미국 대통령 후보의 연설문을 LIWC로 분석하여 언어에 나타난 후보 네 명의 개인차를 특색있게 설명한 연구(Slatcher et al., 2007)와 동일한 접근으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각 대통령의 언어스타일 특징, 재임시대에 따른 언어스타일 변화, 그리고 진보와 보수 정권 간의 언어스타일 차이를 분석하였다. KLIWC를 사용한 한국어 사용 특성이 많이 연구되었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나타난 언어스타일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과 대응하는 한국어 항목을 사용할 수 있었고,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특성도 언어스타일 요인 점수 계산에 반영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 사용 특징이 반영된, 영향력, 진정성, 대통령다운, 인지적 복잡성, 여성성, 심리적 건강의 언어스타일 요인을 개발하였고, 역대 대통령 연설문을 분석하여 대통령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대통령들의 연설문에 숨겨진 언어스타일은 다양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매우 높은 인지적 복잡성과 매우 낮은 심리적 건강 등 다른 대통령과 비교할 때 이질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진행된 산업화로 인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김하수(2017)에 따르면, 반말과 존댓말의 종결법(마침법) 변화, ‘-시-’와 ‘-읍-’과 같은 형태소의 소거, 호칭의 변화 등 많은 언어 변화가 산업화 시기에 나타났다. 박정희 대통령은 인지적 복잡성이 높아 논리적인 언어스타일 보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언어스타일 특징이었고, 노태우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말하려는 특징이 나타났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 이명박 대통령까지는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데, 높아진 영향력과 낮아진 인지적 복잡성이 그 특징이었다. 이는 대중에게 더 쉬운 언어로 다가가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성성과 심리적 건강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듯하고 공감하는 여성적 리더십의 강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었고, 2000년 이후 높아진 삶의 질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반영되어 더 건강한 삶에 대한 표현이 많아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재임시대 별 차이 분석 결과와 추세 분석은 인지적 복잡성이 선형적으로 감소했고, 영향력, 진정성, 여성성, 대통령다움, 심리적 건강이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흥미로운 결과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에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의 세 명의 대통령의 언어스타일 차이분석 결과를 보면, 진보적 대통령은 보수적 대통령보다 영향력, 인지적 복잡성, 여성성이 더 높았고, 반대로 보수적 대통령은 진정성과 대통령다움이 더 높았다. 시대적 흐름을 볼 때, 대중에게는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진보적 대통령의 언어사용 특성은 아쉬운 측면이다. 반대로 보수적 대통령은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여성적 언어 사용이 요구된다.

다른 대통령과 많이 달라서, 눈에 띄는 이승만 대통령의 언어스타일은 이승만 대통령의 재임 시대가 광복 후 한국전쟁을 거쳐 4.19 혁명 전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박정희 집권 후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인터넷,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최근에는 SNS 등 IT 매체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신문 중심의 매스미디어가 방송과 SNS로 변화되었다. 언어 사용의 변화가 많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재임시대는 이러한 변화 이전이었다. 이러한 추론은 재임 시기별 분석의 결과에서 지지되었다. 시간의 흐름이 연설문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된 언어스타일 지표 간의 상관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진정성과 인지적 복잡성 간에 높은 부적 상관이 관찰됐다. 이 점으로 “우리는 똑똑한 대통령을 원하는가? 아니면 정직한 대통령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엿볼 수 있다. 트럼프는 쉽고, 짧고, 직접적인 언어스타일의 연설로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고(Savoy, 2018), 대선에서도 그의 언어스타일은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갖는 지적인 언어 표현보다 단순하지만 쉬운 언어 표현을 유권자들이 더 신뢰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더 높은 지지를 받고자 한다면, 대통령의 연설문은 더 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 소신을 지닌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다.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대통령보다 모든 면에서 성공적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대중에 소구하는 연설을 하였는가 주목할 만한 물음이다. 하나의 가능한 답을 일반 대중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심리적 특징을 다룬 연구 결과들과 결부시켜 보는 것에서 찾을 수 있었다(Carney, Jost, Gosling, & Potter, 2008; Graham, Haidt, & Nosek, 2009; Iyer, Koleva, Graham, Ditto, & Haidt, 2012). 이 연구들에 따르면, 성격적 측면에서 자유주의자는 보수주의자보다 더 높은 개방성과 더 낮은 성실성 점수를 보였다. 도덕적 관련성(relevance) 측면에서 자유주의자는 보수주의자보다 더 높은 위해(harm/care), 공정성(fairness/reciprocity) 점수와 더 낮은 내집단(ingroup/loyalty), 권

위(authority/respect), 순수함(purity/sanctity) 점수를 보였다. 한국의 도덕적 관련성에서는 진보적일수록 높은 공정성 점수를 보였고, 보수적일수록 높은 집단규범존중(내집단, 권위, 순수함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됨) 점수를 보였다(정은경, 박상혁, 이수란, 손영우, 2016). 즉, 보수적인 대중은 성실하며, 권위에 순종적인 특징을 보인 것이다.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개인의 조직화된 정도로 즉흥적이지 않은 특성을 의미(Barrick & Mount, 1991)하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 정권이 이 특성에 맞게 진정성이 높고, 더 대통령다운 언어스타일을 사용했던 것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다르게, 진보적인 대중은 개방적이고 공정함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진보 정권은 더 영향력 있고, 더 조리 있게,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언어로 연설하였다. 이처럼 후보와 지지자 간의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는 특성은 Slatcher et al. (2007)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2004년 대선 당시 미국 공화당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들보다 더 대통령답게 연설했다. 다만, 진보 정권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더 어려운 표현이 사용하였는데, 진보의 특성상 새로운 가치를 설득하고 이해시켜 국민의 지지를 얻어 내고자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구조가 더 복잡해졌을 가능성은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보수정권이 진보정권보다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더 잘 소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인 박근혜의 연설문의 특징을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하였다. 이 비교로 두 가지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는 언어스타일 지표의 척도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글을 통해서 언어스타일 지표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향력, 인지적 복잡성, 여성성, 심리적 건강에서 양호한 내적 일치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진정성과 대통령다움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성과 대통령다움의 지표를 구성하는 KLIWC 변인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서 진정성과 대통령다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언어스타일 요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신뢰도가 양호한 영향력, 인지적 복잡성, 여성성, 심리적 건강 요인에서 확인된 언어스타일의 차이는 흥미로웠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지만 남성적인 언어를 더 선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성은 여성처럼 말해야 자연스럽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흥미롭게 생각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여성성 요인의 개발 과정을 보면 여성과 남성의 언어 비교를 통해서 그 특징을 추출하였다는 점이다. 한 시인의 기고(노혜경, 2018)처럼, 이미 여성은 여성처럼 말해야 하는 사회적 압력 아래에 있고 그러한 특징이 남녀차이 연구(김경일 등, 2009)에 반영된 것이라면, 본 연구의 여성성이 고유한 여성의 언어 인지 사회적 압력 아래의 여성, 즉 약자의 언어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는 여성성 요인의 본질적 특징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스타일 지표가 척도로써 다소 아쉬운 점은 Slatcher et al. (2007)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보다 낮다는 것인데,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어가 갖는 어떤 고유한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원인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글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언어스타일 지표의 신뢰도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또 다른 제한점은 대통령 연설문 자체에 기인하고 있다. 연설문 작성 과정을 볼 때, 대통령의 연설문이 대통령의 생각과 언어스타일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오직 대통령 한 개인의 생각과 언어스타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처럼, 대통령 연설문을 대통령 한 개인의 생각과 언어로 보지 않고 정권으로 확장하여 가상적 인격체의 특성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 분석된 언어스타일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과 언어로 이해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향원, 최도립. (2013).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 전략에 대한 연구; 역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9(3), 285-320.
- 김경일, 배진희, 김영진, 김동근. (2011). 주관적 삶의 질과 언어 사용의 관계성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2(11), 4875-4880.
- 김경일, 배진희, 이창환. (2009). KLIWC를 사용한 남녀의 언어·심리적 특성 차이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3), 1307-1318.
- 김영일, 김영준, 김경일. (2016). K-LIWC를 이용한 비압박 상황의 거짓 태도 탐지. **인지과학**, 27(2), 247-273.
- 김영일, 김영준, 김영진, 김경일. (2019). 악성 댓글의 특성: 한국어와 영어의 인터넷 뉴스 댓글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 548-558.
- 김영준, 김영일, 김경일. (2013). 인터넷 악성 댓글과 일반 댓글의 언어적, 심리적 특성 비교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6), 3191-3201.
- 김하수. (2017). 우리의 의식을 담은 틀, 언어: 언어의 구조, 그리고 그 풍경. **새국어생활**, 27(1), 9-30.
- 노혜경. (2018). [노혜경의 시사한 페미니즘] 여성이 똑부러지게 말하는 걸 금기시 하는 사회: 여성적 언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시사저널**. Retrieved from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5150>
- 문옥영, 김시엽, 전우병, 김범준. (2011). 한국어 진술서에서 책임회피 시 나타나는 거짓의 언어·심리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91-111.
- 박준형, 유호선, 김태영, 한희정, 오효정. (2017). 대통령 연설기록 내용분석을 통한 역대 대통령의 중심가치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57-78.
- 이지영, 김명언. (2011). 최고경영자의 연설문에 나타난 심리적 단어사용과 조직 맥락 간의 관계.

-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4), 759-783.
- 이창환, 심정미, 윤애선. (2005). 언어적 특성을 이용한 '심리학적 한국어 글분석 프로그램 (KLIWC)' 개발 과정에 대한 고찰. **인지과학**, 16(2), 93-121.
- 정은경, 박상혁, 이수란, 손영우. (2016).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덕적 기반 질문지 적용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3), 47-61.
- Barrick, M. R., & Mount, M. K. (1991).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44(1), 1-26.
- Bavelas, J. B., Black, A., Chovil, N., & Mullett, J. (1990). *Equivocal communication*: Sage Publications, Inc.
- Bond, G. D., & Lee, A. Y. (2005). Language of lies in prison: linguistic classification of prisoners' truthful and deceptive natural language.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9(3), 313-329. doi:10.1002/acp.1087
- Bond, G. D., Thompson, L. A., & Malloy, D. M. (2005). Vulnerability of older adults to deception in prison and nonprison contexts. *Psychology and Aging*, 20(1), 60-70.
- Carney, D. R., Jost, J. T., Gosling, S. D., & Potter, J. (2008). The secret lives of liberals and conservatives: Personality profiles, interaction styles, and the things they leave behind. *Political Psychology*, 29(6), 807-840.
- Case, A., & Paxson, C. (2005). Sex differences in morbidity and mortality. *Demography*, 42(2), 189-214.
- De Castella, K., McGarty, C., & Musgrove, L. (2009). Fear appeals in political rhetoric about terrorism: An analysis of speeches by Australian Prime Minister Howard. *Political Psychology*, 30(1), 1-26.
- DePaulo, B. M., Lindsay, J. J., Malone, B. E., Muhlenbruck, L., Charlton, K., & Cooper, H. (2003). Cues to decep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1), 74-118.
- Frattaroli, J. (2006). Experimental disclosure and its moderator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2(6), 823-865.
- Ginter, E., & Simko, V. (2013). Women live longer than men. *Bratislavské lekárske listy*, 114(2), 45-49.
- Graham, J., Haidt, J., & Nosek, B. A. (2009).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1029-1046.
- Inzaurrealde, B. (2017, July 7, 2017). This linguist studied the way Trump speaks for two years. Here's what she found. *The Washington Post*. Retrieved from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he-fix/wp/2017/07/07/this-linguist-studied-the-way-trump-speaks-for-two-years-heres-what-she-found/?noredirect=on&utm_term=.6756972fc995
- Iyer, R., Koleva, S., Graham, J., Ditto, P., & Haidt, J. (2012). Understanding libertarian morality: The psychological dispositions of self-identified libertarians. *PLoS ONE*, 7(8), e42366.
- Jagger, C., Gillies, C., Moscone, F., Cambois, E., Van Oyen, H., Nusselder, W., & Robine, J.-M. (2008). Inequalities in healthy life years in the 25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in 2005: a cross-national

- meta-regression analysis. *The Lancet*, 372(9656), 2124-2131.
- Johnson, M. K., & Raye, C. L. (1981). Reality monitoring. *Psychological Review*, 88(1), 67-85.
- Jordan, K. N., & Pennebaker, J. W. (2016). *A Look into the Second Clinton-Trump Debate*. Retrieved from Wordwatchers, Tracking the language of public figures: <https://wordwatchers.wordpress.com/2016/10/10/a-look-into-the-second-clinton-trump-debate/>
- Jordan, K. N., & Pennebaker, J. W. (2017). *Trump's First State of the Union Address*. Retrieved from Wordwatchers, Tracking the language of public figures: <https://wordwatchers.wordpress.com/2017/03/01/trumps-first-state-of-the-union-address/>
- Kim, K., Bae, J., Nho, M.-W., & Lee, C. H. (2011). How do experts and novices differ? Relation versus attribute and thinking versus feeling in language use.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5(4), 379-388.
- Krippendorff, K. (1989). Content analysis. In E. Barnouw, G. Gerbner, W. Schramm, T. L. Worth, & L. Gross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Vol. 1, pp. 403-407).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Retrieved from http://repository.upenn.edu/asc_papers/226
- Mitnitski, A. B., Mogilner, A. J., & Rockwood, K. (2001). Accumulation of deficits as a proxy measure of aging.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1, 323-336.
- Nan, Y., & Liu, L. (2013). Investigating the interpersonal and textual meaning of Steve Jobs' Stanford speech in terms of Hyland's metadiscourse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Linguistics*, 1(4), 90-96.
- Newman, M. L., Groom, C. J., Handelman, L. D., & Pennebaker, J. W. (2008). Gender differences in language use: An analysis of 14,000 text samples. *Discourse Processes*, 45(3), 211-236.
- Newman, M. L., Pennebaker, J. W., Berry, D. S., & Richards, J. M. (2003). Lying words: Predicting deception from linguistic styl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5), 665-675.
- OECD. (2013). *Gender differences in well-being: Can women and men have it all?, in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787/how_life-2013-8-en
- Pennebaker, J. W., & Chung, C. K. (2007). Expressive writing, emotional upheavals, and health. In H. S. Friedman & R. C. Silver (Eds.), *Foundations of health psychology* (pp. 263-284).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ennebaker, J. W., & King, L. A. (1999). Linguistic styles: language use as an individual dif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296-1312.
- Pennebaker, J. W., & Stone, L. D. (2003). Words of wisdom: language use over the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291-301.
- Porter, S., & Yuille, J. C. (1996). The language of deceit: An investigation of the verbal clues to

- deception in the interrogation context. *Law and Human Behavior*, 20(4), 443-458.
- Pu, C. (2007). Discourse Analysis of President Bush's Speech at Tsinghua University, China.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16(1), 205-216.
- Range, L. M., & Jenkins, S. R. (2010). Who Benefits from Pennebaker's Expressive Writing Paradigm? Research Recommendations from Three Gender Theories. *Sex Roles*, 63(3), 149-164. doi:10.1007/s11199-010-9749-7
- Rude, S., Gortner, E.-M., & Pennebaker, J. (2004). Language use of depressed and depression-vulnerable college students. *Cognition & Emotion*, 18(8), 1121-1133.
- Savoy, J. (2018). Analysis of the style and the rhetoric of the 2016 US presidential primaries. *Digital Scholarship in the Humanities*, 33(1), 143-159. doi:10.1093/lc/fqx007
- Schünemann, J., Strulik, H., & Trimborn, T. (2017). The gender gap in mortality: How much is explained by behavior? *Journal of Health Economics*, 54, 79-90.
- Slatcher, R. B., Chung, C. K., Pennebaker, J. W., & Stone, L. D. (2007). Winning words: Individual differences in linguistic style among US presidential and vice presidential candidat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1), 63-75.
- Smyth, J. M. (1998). Written emotional expression: effect sizes, outcome types, and moderating variab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1), 174-184.
- Tausczik, Y. R., & Pennebaker, J. W. (2010).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words: LIWC and computerized text analysis method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9(1), 24-54.
- Tetlock, P. E. (1981). Pre-to postelection shifts in presidential rhetoric: Impression management or cognitive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207-212.
- Van Oyen, H., Nusselder, W., Jagger, C., Kolip, P., Cambois, E., & Robine, J.-M. (2013). Gender differences in healthy life years within the EU: an exploration of the "health-survival" paradox.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8(1), 143-155.
- Vrij, A. (2000). *Detecting Lies and Deceit: The Psychology of Lying and Implications for Professional Practice*. Wiley.

1차 원고 접수: 2018. 8. 17
1차 심사 완료: 2019. 5. 31
2차 원고 접수: 2019. 7. 25
2차 심사 완료: 2019. 8. 16
3차 원고 접수: 2019. 8. 26
최종 게재 확정: 2019. 8. 27

(Abstract)

Language styl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linguistic and psychological properties in Presidents' Address

Youngjun Kim

Kyungil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is study quantitatively analyzed the speeches of the former 8 Presid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nalyzed both the content word and the functional word related to the psychological phenomenon. In Study 1, six language style indicators such as clout, authenticity, presidentiality, cognitive complexity, femininity, and psychological health were developed. Also, as presidential speeches have been made recently, authenticity, presidentiality, psychological health tended to increase, but cognitive complexity tended to decrease. These tendencies were supported by linear trend analysis. The linguistic differences were distinct not only among individual presidents but also by groups based on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president. In the progressive presidential speech, more clout, cognitive complexity, femininity were observed. In contrast, more authenticity and presidentiality were observed in the conservative presidential speech. In Study 2, it was demonstrated whether the developed language style indicators show reliability in the most recent President's speeches. Finally, it was discuss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style indicators, fitness of the political tendency between the regime and the general public since 2000s, and the characteristics of femininity indicator.

Key words : KLIWC, President's Address, Language Style, Progressive, Conservative

부 록

표 4에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목록으로 정치성향과 재임시대를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표 4.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목록

순서	대통령	정치성향	대	재임일	취임일	퇴임일	재임시대 분류
			1	1460	1948-08-15	1952-08-14	
1	이승만	보수	2	1460	1952-08-15	1956-08-14	50년대
			3	1350	1956-08-15	1960-04-26	
2	윤보선	진보	4	588	1960-08-12	1962-03-23	-
			5	1291	1963-12-17	1967-06-30	
			6	1460	1967-07-01	1971-06-30	
3	박정희	보수	7	544	1971-07-01	1972-12-26	60~70년대
			8	2190	1972-12-27	1978-12-26	
			9	303	1978-12-27	1979-10-26	
4	최규하	-	10	254	1979-12-06	1980-08-16	-
			11	176	1980-09-01	1981-02-24	
5	전두환	보수	12	2555	1981-02-25	1988-02-24	80~90년대
6	노태우		13	1826	1988-02-25	1993-02-24	
7	김영삼		14	1825	1993-02-25	1998-02-24	
8	김대중	진보	15	1825	1998-02-25	2003-02-24	
9	노무현		16	1825	2003-02-25	2008-02-24	2000년대
10	이명박	보수	17	1826	2008-02-25	2013-02-24	
11	박근혜		18	1383	2013-02-25	2017-03-10	-

표 5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설문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역대 대통령 10인의 수집된 6681개의 연설문 자료 중에서 대통령 윤보선과 최규하의 연설문은 다른 대통령들보다 매우 적어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5. 연설문 자료의 기본특성

순서	수집된 연설문	분석된 연설문	분석된 비율%	KLIWC 기본 속성 범주				
				문장	어절	형태소	어절/문장	형태소/문장
1	998	916	92%	12.97 (17.56)	427.22 (409.18)	785.27 (724.00)	44.87 (27.82)	82.28 (49.74)
2	3	-						
3	1270	1240	98%	36.10 (60.73)	800.73 (1334.51)	1451.88 (2374.68)	23.15 (4.69)	42.44 (8.73)
4	58	-						
5	602	592	98%	33.93 (36.32)	695.62 (727.71)	1350.75 (1424.90)	21.48 (5.42)	41.47 (10.01)
6	601	585	97%	63.94 (62.95)	1022.83 (990.63)	1889.33 (1859.35)	16.46 (3.65)	30.22 (6.11)
7	728	724	99%	42.36 (37.93)	601.18 (537.78)	1127.63 (1018.09)	14.83 (2.79)	27.79 (5.30)
8	822	808	98%	50.88 (51.10)	703.26 (705.21)	1320.45 (1325.29)	14.38 (2.84)	26.88 (5.26)
9	780	754	97%	44.85 (73.51)	588.17 (1025.56)	1099.75 (1909.74)	12.64 (2.27)	23.59 (4.12)
10	819	797	97%	33.26 (43.31)	631.96 (698.85)	1136.50 (1260.36)	21.47 (6.78)	38.58 (12.00)
총계	6681	6416	97%	38.38	677.22	1253.56	21.998	40.617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

표 6에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역대 대통령 8인의 연설문 자료의 KLIWC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분석에는 대통령 윤보선과 최규하의 연설문 자료를 제외하였고, 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연설문 자료는 제공되지 않아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표 6. 역대 대통령 연설문 자료의 KLIWC 범주 기술통계(규준)

언어차원	평균	표준 편차	심리차원	평균	표준 편차
문장	38.38	52.73	감정 또는 정서적 과정	5.07	1.58
어절	677.22	899.95	긍정적인 정서	3.06	1.38
형태소	1253.56	1646.86	긍정적인 느낌	1.73	0.97
어절/문장	22.00	15.10	낙천성 또는 활동성	0.74	0.53
형태소/문장	40.62	27.24	부정적인 정서	1.47	0.80
일반명사	26.21	3.44	불안	0.11	0.16
고유명사	3.73	2.68	화	0.43	0.37
일반-고유명사	0.23	0.24	슬픔 또는 우울	0.16	0.23
의존명사	1.37	0.62	인지적인 과정	5.41	1.55
지시대명사	0.69	0.47	원인	0.58	0.40
인칭대명사	2.14	0.93	사고	1.30	0.69
1인칭단수	0.25	0.27	기대	1.61	0.89
2인칭단수	0.00	0.02	제한	0.56	0.39
3인칭단수	0.25	0.25	추측	1.56	0.88
1인칭복수	0.81	0.57	확신	1.53	0.64
2인칭복수	0.00	0.01	감각, 지각적인 과정	1.71	0.77
3인칭복수	0.02	0.08	사회적 과정	5.01	1.52
양수사	0.49	0.62	체면	0.23	0.24
서수사	0.00	0.02	의사소통	2.77	1.23
조사	18.22	2.03	타인참조	0.58	0.43
인용조사	0.24	0.24	또래(친구)	0.15	0.24
이다조사	1.57	0.64	가족	0.21	0.28
동사	8.06	1.65	인간	1.35	0.89
자동사	0.02	0.07	자기활동	3.32	1.61
형용사	1.89	0.78	학교	1.42	0.91
관형사	0.35	0.30	직장/일	1.16	0.95
수관형사	0.81	0.57	성취	1.73	0.83
일반부사	2.40	0.79	여가활동	0.54	0.55
감탄사	0.11	0.16	집	0.18	0.25
접두사	0.11	0.17	운동	0.08	0.26
접미사	0.04	0.09	TV/영화	0.04	0.26
어미	16.30	1.82	음악	0.01	0.07
선어말어미	1.06	0.62	돈/재정적이슈	0.65	0.71
한자	0.18	0.95	신체적 상태와 기능	1.11	0.56
영어	0.13	1.31	몸 상태와 증상	0.95	0.51
명사추정의래어	0.30	0.44	성/성정	0.07	0.12
			식사/음주/다이어트	0.20	0.28
			수면, 꿈	0.10	0.18
			형이상학적이슈	0.32	0.42
			죽음	0.10	0.15
			종교	0.17	0.40
			속어	0.17	0.20

표 7에 재임시대에 따른 언어스타일 표준점수를 나타내었다. 역대 대통령 8인을 재임시대에 따라 구분하였다.

표 7. 재임시대에 따른 언어스타일 표준점수

	재임시대(n=6416)				F	η_p^2
	50년대 (n=916)	60~70년대 (n=1240)	80~90년대 (n=1901)	2000년대 (n=2359)		
영향력	-1.63 (2.42)	-.81 (2.46)	.28 (2.46)	.83 (2.96)	239.01***	.10
진정성	-5.60 (4.74)	-1.51 (3.92)	1.08 (3.56)	2.10 (3.78)	968.10***	.31
대통령다움	-6.48 (6.50)	-1.61 (5.55)	1.38 (4.78)	2.26 (5.40)	648.50***	.23
인지적복잡성	8.02 (6.53)	1.07 (4.85)	-.72 (4.58)	-3.10 (5.04)	1070.19***	.33
여성성	-2.84 (3.40)	-.28 (4.41)	.16 (3.91)	1.16 (4.20)	212.26***	.09
심리적건강	-5.66 (5.80)	-1.45 (5.11)	.63 (5.16)	2.45 (5.20)	564.19***	.21

*** $p < .001$,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차이다.